

서울YWCA

2025 07+08
Vol.637



현장 속으로
2025 시민걷기축제

돌봄의 영성,
여성을 다시 생각한다



신혼부부학교
'Let's PICNIC'

미술로 읽는 성경
인류의 새 출발과
언약의 무지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양한나

은폐된 몸 이야기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 구호처럼
각자의 몸 이야기를 개인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는 데서 비극이 발생한다.”
- 이유진 「바디올로지」 중에서

나의 몸을 오롯하게 나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적어도 인류의 절반이 자기 몸을 평가당해야만 하는
이 세계는 과장해도 너무나 과장하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릇된 흐름에 맞서 세계를
이토록 어그러뜨린 책임을 물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성애자 남성에게, 백인 남성에게,
그리고 비장애 남성에게.

여성의 신체는 줄곧 이성애자 남성의 시선에 의해
평가당해 왔다. 비장애 남성은 운동의 영역을
독점해 왔고, 백인 남성은 인종과 성별을 잣대로
위계를 설정한 채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일삼아 왔다.
그들은 여전히 신체 부위의 크기, 머리 길이,
타투 유무 등으로 여성의 가치를 스스럼없이
판단하며, 드러낼 수 있는 부위와
드러낼 수 없는 부위의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이 성행하며
비인간 동물의 삶까지 헤아리는 시대에
이런 해묵은 시선이 여전히 용납된다는 것은
지긋하고도 모욕적인 수치다.



기자이자 여성학과 문화학 연구자로 활동해 온
이유진은 신체를 세분화해서 날카롭게 분석한
책 「바디올로지」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가슴, 다리, 머리카락, 피부, 체취 등
남성의 시선을 따라 왜곡된 몸 역사를
정치적인 맥락에서 들여다본다.
여성의 신체를 거리낌 없이 평가하고 해석해 온
구태의연한 시선들은, 냉철하게 따져 묻고
지성적으로 논변하는 이유진의
뾰족한 텍스트를 거쳐 날날이 드러난다.
나는 이 책을 몸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몸 이야기가 은폐될수록
대상화의 과거와 현재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 이야기는
공적인 장에서 더 활발히 말해지고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몸을
온전히 존중받는 시대가 도래할 테니까.

서울YWCA

2025년 7·8월호 637호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7월 공동기도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법률, 정책, 정치, 외교가 시대와 국민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계획·절차·실행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소서.
법과 정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아멘

8월 공동기도

진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폭염 가운데 우리 모두의 안녕을 지켜 주십시오.
모든 이들이 복음 안에 있는 참 해방과 참 자유를 보게 하여주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억압과 속박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2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

4 돌봄의 영성과 YWCA 운동 ②
돌봄의 영성, 여성을 다시 생각한다

6 Y 이슈

Y-틴, 대학·청년YWCA 2025 연합인준식

8 현장 속으로

2025 시민걷기축제
2025 신혼부부학교 ‘Let's PICNIC’
‘모두 돌봄ON(ON)’ 프로젝트

13 미디어 모니터링

더 빨라지고, 더 교묘해진 혐오의 유통

14 미술로 읽는 성경

인류의 새 출발과 언약의 무지개

16 서울Y 소식

5·6월 뉴스
7·8월 행사 안내
7·8월 캘린더

22 라운드 테이블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

24 환경 에세이

나무의 거리 두기

26 후원 소식

29 알림터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양한나, 부산Y 창설자

「서울YWCA」 2025년 7·8월호 통권 제637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5년 7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최 봉 편집위원장 황성연 편집위원 김유애 이재숙 인 미 전부일 조희수 최문희 최혜란 편집 강민아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이희도 인문 교양서 출판편집자. 읽고 싶은 글을 매만지고 물성을 아름답게 입혀 세상에 내놓는 일을 합니다.
악자, 소수자, 돌봄, 전쟁,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에 긴절한 텍스트를 매일 찾아 읽고 씁니다. @trauer_h



www.instagram.com/
seoulywca_korea



www.facebook.com/
seoulywca



blog.naver.com/
ywcaseoul



검색창에
서울YWCA



검색창에
서울YWCA

돌봄의 영성, 여성을 다시 생각한다



송진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목사

2024년 기준 맞벌이 부부가 611만 5천 가구를 넘었습니다. 유배우자 맞벌이 비율이 48.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58.9%, 40대 57.9%, 50대가 58%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60%가 맞벌이를 하는 셈이지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일상이 회복되자 취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여성-가정-돌봄’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는 사회적 위기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여성 고용률이 62%를 넘어 사상 최대치라고 보도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남성과 대등하고,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자 모델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을 돌아봐도 여성의 일자리는 IMF 금융위기, 집값 상승과 경제 불안, 코로나 팬데믹 등 굵직한 위기 앞에서 가장 취약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뭐라 규정하든 여성은 정리해고, 권고휴직의 0순위이고, 가사 및 돌봄의 무게는 임금이나 커리어 대신 유연한 근무나 비정규직을 선택하게 합니다. 경력 단절은 당연한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일이 비단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일어날까요? 얼마 전 로펌에서 5개월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는 변호사를 해고해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직, 정규직에서도 여성 일자리는 불안정합니다.

빨리 변하는 여성 vs 느리게 변하는 남성·사회

이러한 현상과 별개로 2030 청년세대는 집안일을 동등하게 분담하고 평등하게 자기 삶을 재구성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24년 기준 해당 세대 가사동등 분담률 56%) 그럼에도 집안일은 “대체로 아내가”라는 응답이 전 세대 73%라는 결과를 보면 갈 길이 한참 멉니다. 게다가 정부는 저출생 해법으로 돌봄책임제를 선언했지만, 그것은 돌봄의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돌봄비용을 경감하거나 다른 여성·외국인 노동자에게 돌봄을 전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하는 사회에서 “빨리 변하는 여성과 느리게 변하는 남성·사회

변하는 사회에서
“빨리 변하는 여성과
느리게 변하는
남성·사회 사이의
긴장”을 두고, 흑실드는
“지연된 혁명”이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비판이 제기된 것이
1989년이라는 점이지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이의 긴장”을 두고, 흑실드(Hochschild)는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이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비판이 제기된 것이 1989년이라는 점이지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 다. 여성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차리고, 빨래를 정리하고, 아이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딸 친구랑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아들 시험 결과는 어땠는지 확인하며 서로의 감정도 살핍니다. 변하지 않는 가부장적 성별 분업제도,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여성의 노동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여성은 사회에서 임금 노동자로, 가정에서 가사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쉽 없이 돌아가는 돌봄을 수행합니다. 돌봄은 자녀나 환자 그리고 노인을 돌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한 인간이 노동하고 돌아와 집에서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그렇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하고, 먹거리를 사고, 가족 생일을 챙기며, 감정을 나누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전문 용어로 ‘사회적 재생산’을 통해 삶이 영위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의 대가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회적 재생산—즉 돌봄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재생산·돌봄이 전통적으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여성의 몫이었다는 점입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허드렛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취급되면서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봄은 비생산적 노동으로 여겨진 것이지요. 그러니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도우미 아줌마로, 식당 노동자는 밥하는 아줌마로 불리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성의 일은 폄하되고, 돌봄은 저임금의 대체 가능한 노동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대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재생산·돌봄을 상품화했습니다. 그렇게 여성-돌봄-가정의 긴밀한 관계는 불편하고 부정의한 인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긴밀한 착취, 돌봄 노동

인간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돌봄의 대상이자 돌봄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필요하지만 버겁고 귀찮은 일이자 보이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돌봄의 주체는 엄마, 아내, 딸, 할머니, 이주 노동자라는 여성의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정의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랑과 책임으로 감당해야 하는 여성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여성의 노동과 여성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다하지 못하는 미안함으로, 일하는 여성에게 죄책감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 점에서 알바 갓비(Alva Gotby)는 돌봄노동을 친밀한 착취라고 합니다. 사랑함과 미안함의 뒤엉킨 실타래를 내려놓고, 돌봄 노동과 감정 노동의 끈적한 아교를 떼어내 봅시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여성의 존엄과 여성의 자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



Y-틴, 대학·청년YWCA 2025 연합인준식

서울Y는 5월 17일 ‘Y-틴, 대학·청년YWCA 2025 연합인준식’을 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인준식은 문신환 청소년팀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청소년팀 소개 영상’이 그 시작을 알렸다. 김정연 청년지도자(은하수)의 재능기부로 완성된 영상은 ‘당신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서울Y 청소년팀과 각 동아리를 소개했다. 따로 또 같이하는 활동을 통해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은 영상 덕분에 서로를 환대하고 응원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여는 예배에서 백소영 교수(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는 ‘Proleptic Living : 예기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로 메시지를 전했다. ‘기독교는 끝내고 시작하는 종교’라고 소개하며,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 곧 기독교의 믿음이자 태도임을 전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심으로 마른 뼈를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서울Y의 청소년, 청년이 잃지 않기를, 더 나아가 생기가 흘러넘쳐 다른 사람을 살아내게 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승자독식의 피라미드 사회에서 벗어나 서로 마주보고 기대어 원형을 이루는 사회, ‘카이 알레론’(서로 함께 순종하고 봉사하라는 의미의 헬라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권면했다.

이어진 이천양정여고 Y-틴의 ‘Celebrate the Light’ 활기찬 위십은 모두에게 찬양의 기쁨을 선사해주었으며 대학·청년YWCA 동아리 ‘소리모아’의 ‘꽃송이가’ 합창은 인준식의 의미에 맞게 설렘을 선물했다.

“YWCA 목적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Y-틴, 대학·청년YWCA 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을 모두가 함께했다. 이후로 인준장, 임명장, 위촉장, 장학증서 수여가 격려와 축하 속에 이어졌다. 특별히, 2011년부터 매년 서울Y 청소년과 청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따뜻한나무장학회’가 올해도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서울Y 청(소)년 활동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줘 감동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특별히 대학·청년YWCA 임원협의회의 기획으로 청(소)년 회원 교류를 위한 ‘서울Y 동아리 넉넉(Knock, Knock) & 리플라이(Reply)’ 코너가 마련되었다. ‘동아리

넉넉’은 각 동아리의 소개 포스터를 서울Y 로비에 전시해 회원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구경하고 포스터에 질문 메시지를 붙이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중서 수여 이후 이어진 ‘동아리플라이’ 코너에서는 각 동아리 대표가 직접 나와 동아리를 소개하고, 붙여진 질문 메시지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선운 청년(대학·청년YWCA 협의회 회장)과 오진우 청년(소리모아 대표)이 사회를 맡아 재치 있는 진행으로 유쾌하고 발랄한 교류의 장을 이끌었다.

이번 연합인준식은 서울Y 안에서 함께하는 청소년, 청년이 서로 교류하며 공동체로 하나되는 자리였다. 인준식을 계기로 Y-틴과 대학·청년YWCA 청년 회원이 Y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만들어가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Y

정리.문신환 청소년팀 간사



① 여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백소영 교수 ② 이천양정여고 Y-틴의 위십 ③ 임명장을 받은 동아리 대표와 배정미 청소년위원장(맨오른쪽) ④ 장학증서를 받은 청(소)년 회원과 배은경 장학위원장(맨오른쪽) ⑤ 위촉된 동아리 지도교사와 조연신 회장(왼쪽부터 세 번째)



2025 시민걷기축제 모두를 잇는 한 걸음

서울Y는 5월 24일 2025 시민걷기축제를 남산공원에서 열었다.
200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서울Y 걷기축제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잇는 한 걸음’이다. 갈등과 분열, 혐오를 넘어 ‘존중’과 ‘평화’로 나아가는
연대의 발걸음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축제 참가자 개개인은
‘○○를 잇는 한 걸음’이라는 표어에 저마다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스티커를 붙이고 걸으며 화합을 향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걷기축제에서는 남산 북측순환로(7km) 걷기 코스를 비롯 여러 부스 체험,
완주꾸러미 증정, 행운권 추첨 등 풍성한 즐길 거리도 펼쳐졌다.
새벽에 내린 비 덕분에 더욱 영롱한 초록빛 신록과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었던 이번 걷기축제.
내년에는 보다 많은 회원과 시민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Y



개회선언하는
이지선 걷기대회준비위원장



“텀블러만 있으면 스타벅스 커피를 드려요~”
커피도 즐기고 제로 웨이스트도 실천하고~ 일석이조^^



바른 걷기 자세와 족압 측정.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땀90 오키90.
경력단절 예방 캠페인, 알록달록 막대풍선 픽업부스,
마당놀이 등산까지 좋구나~

행운권 당첨을
축하합니다



서울YWCA 시민걷기축제. 걷기만 했는데 텐션 무엇?
계절은즐거워~



2025 신혼부부학교

Let's PICNIC

서울YWCA는 유한킴벌리와 함께
2025 신혼부부학교를 두 차례에 걸쳐
서울Y 회관을 중심으로 명동 일대에서 열었다.
무려 13,7대1에 이르는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5월 31일(39기)에는 결혼(예정 포함) 3년차
무자녀 신혼부부 28커플, 6월 7일(40기)에는
결혼 7년차까지 유자녀 신혼부부 22커플이 참여했다.
올해 신혼부부학교 주제는 'Let's PICNIC'.
'소풍'을 넘어 'Problem In Communication,
Not In the Couple(부부가 아닌 소통의 문제)'라는
의미도 담아냈다.

이번 학기는 서울 명동에서 즐기는 부부만의
피크닉,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의 비건 점심식사,
이광민·조성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라운드테이블까지 역대급 커리큘럼으로 꾸며졌다.
신혼부부학교 졸업식 후에는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를 희망한 부부를 대상으로 가감 없는 솔직한
'신혼부부 FGI'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적 이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당사자, 시민) - 서울YWCA(시민단체) -
유한킴벌리(기업)가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이었다.
2009년부터 매해 열고 있는 신혼부부학교.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공감하고 지지하는 장으로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육아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신혼부부학교의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



부부끼리 가족끼리 즐기는
명동 피크닉!
유한킴벌리 우퍼와
인증샷도 찍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비건으로 준비된 점심도 먹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돌만의, 가족만의
추억을 쌓아봅니다



출산과 양육, 선택의 문 앞에서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택"

39기 멘토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자녀 계획이 망설여진다"고 말하자, 이 멘
토는 영화 <매트릭스>를 비유로, 깊은 메시
지를 전했다. "출산과 양육은 마치 매트릭스
의 빨간 약과 같습니다. 파란 약을 선택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
럼 지금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간 약을 삼
키는 순간, 육체 피로는 물론 감정적, 현실적 도전이 동반되죠. 하
지만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자녀는 제게 또
다른 세계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었
고,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사랑이 내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단지 '희생'이나 '고통'이 아닌, 새
로운 정체성과 내면의 성숙으로 이끄는 여정일 수 있음을 진심 어
린 목소리로 조언했다.



산후우울증,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회복의 첫걸음"

40기 멘토 조성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산후우울증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라는 한 여성 배우자의 질
문에 "저희도 같은 시기를 겪으며 정말 힘
들었어요. 병원 치료를 주저하지 않고 받았
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는 다른 신혼부부의 진솔하고 현실적인 조언은 모
두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 조 멘토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말
이 바로 정답입니다."라고 감탄을 표하며 "산후우울증은 절대 개
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필요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
아야 합니다. 남성 배우자, 시댁, 친정 등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육아는 혼자 해내는 싸움이
아니며,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라고 강
조했다.



‘모두 돌봄ON(溫)’ 프로젝트

실천형 돌봄 키트 개발, 돌봄 문화 조성에 기여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누가 돌볼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일상적인 가사와 자녀 돌봄이 여전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돌봄은 누구의 몫인가?” 이 질문이 바로 ‘모두 돌봄ON(溫)’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서울Y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의 현실에 맞춰 함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이 키트는 가정 내 불평등한 돌봄 노동을 가시화하고, 공정한 분담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다. 참여자는 키트를 활용해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조율하며,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돌봄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모두 돌봄ON(溫)’ 키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집안일 카드는 총 120장으로, 가사돌봄·자녀돌봄·기타돌봄 영역에서의 기획노동(머리로 하는 준비)과 실행노동(몸으로 하는 실행)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노동의 분류와 분담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둘째, 가족노트(워크북)는 진단표, 시간표, 돌봄일지, 정기 점검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이 함께 자신의 돌봄 습관

을 돌아보고 조율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워크북에서는 기획노동, 실행노동과 함께 감정노동도 다루며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집안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서툴지만 함께하는 돌봄’을 통해 가정 내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다. ‘모두 돌봄ON(溫)’이 개인의 실천을 넘어, 사회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키트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이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우리 가정의 돌봄 스위치를 함께 켜보는 이 따뜻한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 정리 박소영 여성운동팀 간사



더 빨라지고, 더 교묘해진 혐오의 유통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는

점점 더 일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

누군가를 겨냥한 조롱과 배제는

친숙한 말투와

익숙한 이미지 속에 섞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혐오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확산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다.

모니터링 대상

2025년 3월~5월

온라인 커뮤니티

7곳의 인기 게시글 1,800건

모니터링 기간

2025년 5월 3일~28일

GPT: 한녀혼해서 행복한 사례는 0건이다

전체 댓글

댓글 등록

○○○ L 한녀혼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불지옥

30대 여성을 향한 폼하 프레임 확산과 조롱 서사의 급증

‘한녀’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30대 이상 한국 여성에 대한 혐오가 집중되고 있다. 일부 2030 세대 남성들은 심화된 경쟁과 박탈감을 여성에 대한 적대로 전환하며, 반페미니즘·역차별 담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은 남성 중심의 성역할을 이상화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공적 발언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녀혼¹⁾= 불지옥’ 같은 표현이나, 여성을 문란하고 기생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사례도 빈번히 등장했다.

캡처 이미지 기반의 혐오 확산과 커뮤니티 간 순환

성차별적 게시물의 다수는 외부 커뮤니티나 SNS의 글을 캡처하고, 그 위에 자의적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서울Y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성차별 이미지 게시물의 약 72.1%가 외부 출처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 기반 콘텐츠는 텍스트보다 빠르게 소비되고 쉽게 공유되며, 높은 조회수와 반응을 유도해 성차별적 인식 확산에 작용하고 있었다.

중도 위장 접근과 커뮤니티 간 교란 전략

상대 진영 커뮤니티에 중립적인 척 접근해 내부 갈등을 조장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도 나타났다. ‘나도 여자지만...’과 같은 서두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성 중심 시각을 강화하거나 페미니즘을 조롱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글들이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인물을 ‘동현이²⁾’라 부르며, 내부 여론을 교란하려는 시도를 이미 경계하고 있었다.

성차별적 콘텐츠는 더 빠르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를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커뮤니티의 필터링 시스템 정교화, 선제적 개입,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감시와 대응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정리 서정인 여성운동팀 활동가

1) 한국 여성과의 결혼

2) 남성이 여성을 가장해 여초 커뮤니티에 침투, 여성인 척 내부 여론을 교란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신조어

인류의 새 출발과 언약의 무지개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 이후 최대의 사건은 노아의 여덟 식구 이외의 모든 인간을 40일 간의 홍수로 멸절시킨 일이다. 그 당시 세상은 지극히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과 경건했던 셋의 후손의 오랜 시간에 걸친 결합으로 극도로 타락해 있었으며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창세기 6:7)과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창세기 6:12)을 보시고 천하의 모든 생명을 멸절하기로 하셨다. 그러나 그중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류를 위해 선택된 사람이 노아였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비축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아내, 오백 세 이후 낳은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세 자부,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새는 암수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두 쌍씩 들어갔다.

에드워드 히кс 「노아의 방주」

미국 웨이커 교회 목사이자 화가인 에드워드 히кс(Edward Hicks, 1780-1849)는 웨이커 교도로서의 신앙관이 투영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의 1846년 작품인 「노아의 방주」는 질서 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동물들을 묘

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그가 그린 방주는, 아래는 타원형의 배이고, 그 위는 거대한 삼층집의 형식을 띠고 있다. 성경에 따르면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잣나무 또는 삼나무로 추정)이고, 그 크기는 길이 삼백 규빗(약 135m), 너비 오십 규빗(약 22.5m), 높이 삼십 규빗(약 13.5m)의 삼층으로 된 거대한 형태였다. 방주의 안팎은 물에 젖지 않게 역청으로 칠해졌고, 내부는 칸을 나눠 사람과 동물이 편하게 거주할



에드워드 히кс 「노아의 방주」, 1846. 캔버스에 유채, 66.8x77.2cm. 필라델피아 미술관, 미국 필라델피아



마르크 샤갈 「노아와 무지개」, 1966. 캔버스에 유채, 205x292.5cm. 국립 마르크 샤갈 성서 메시지 미술관, 프랑스 니스

수 있게 했으며 위에서 1규빗(약 45cm) 아래로 창이 있어 바깥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지 일주일 후부터 시작된 비는 하늘의 창이 열린 듯 40일 동안 밤낮없이 쏟아지면서 땅 위의 모든 산도 잠기고 방주에 탄 생명체 이외의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홍수가 그치자 이리저리 떠돌던 방주는 아라랏산에서 멈추었고, 지면의 물이 다 마르자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후손을 축복하면서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마르크 샤갈 「노아와 무지개」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은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이자 독실한 유대교인으로 1910년부터 파리에 서 작품활동을 시작하면서 점차 표현주의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시켰다. 그는 1931년부터 성서 메시지 연작을 그리면서 성경 내용에 상상력을 가미시키는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1966년 작 「노아와

무지개」는 다섯 번째 이야기에 속한다. 이 유화 작품은 샤갈이 즐겨 사용하는 청색과 녹색 톤을 배경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인 무지개가 하얀 물줄기로 두드러져 보인다. 무지개 속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만 한쪽 날개가 붉게 피어 젖은 것으로 표현하여 인간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한다. 무지개는 땅과 하늘의 두 영역으로 구분할 뿐 아니라 좌측 아래에서 우측 하단으로 연결되면서 서사적으로도 완성도를 높인다. 하늘의 왼쪽은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며 오른쪽은 천국의 모습이다. 땅의 영역에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의 가족,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로 바치는 노아, 새 역사의 선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땅에 충만한 후손을 꿈꾸는 노아로 완결된다. 노아가 꿈꾸는 것은 아담 이후 상실했던 낙원의 회복으로, 사람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어 분열 없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다.

홍수 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으나 그의 후손을 통해 인류는 여러 민족으로 번성했다. ♪

2025 신입위원 교육



서울Y는 2025 신입위원 교육을 5월 29일 회관 5층 다목적실에서 열었다. 9명의 신입위원이 참석해 YWCA 목적과 정체성, 역사에 대해 배우며 YWCA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서 비전과 사업을 공유하고 각 위원회별 활동도 알아보았다. '선배 활동가와의 만남' 시간에는 이유림 직전회장이 자신의 경험과 활동 사례를 진솔하고도 힘있게 나누며 후배 활동가인 신입위원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서울Y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신입위원의 생명력 넘치는 활약을 기대한다.

봉천 '웃음꽃 피는 동아 마을'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16일 성현동 동아아파트 주민과 함께 '웃음꽃 피는 동아 마을' 문화 행사를 가졌다. 봉천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서울관악경찰서, 관악소방서, 관악구치매안심센터, 관악문화재단,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포토존, 문화공연, 놀이·안전·건강 체험부스, 먹거리 나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성현동 주민지원단이 행사 준비부터 진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었다. 봉천복지관은 앞으로도 주민관계망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노원

일자리 협력망 자문회의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22일 '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이너 양성' 과정과 관련해 일자리 협력망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현업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실효성 있게 교육 내용을 수정하고 취업 연계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았다.



영등포

소프트웨어테스팅 전문가 양성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26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소프트웨어테스팅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15명의 교육생은 소프트웨어테스팅 이론과 실습, 팀프로젝트, 기업 현장실습, OA 교육을 받는다. 소프트웨어테스팅은 앱과 웹사이트, AI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로, 교육 이수 시에는 ISTQB(국제소프트웨어테스팅) 자격이 주어지며 취업 후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강남

세계문화축제

강남청소년센터는 5월 17일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일환으로 '세계문화축제'를 센터 앞마당에서 운영했다.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기념해 대한민국, 일본, 튀르키예, 이집트, 멕시코, 베트남 등 6개국 원어민과 함께 각 나라 인사말을 배우고 전통 놀이, 문화,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스를 마련했다. 해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문화축제는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수성과 글로벌 창의력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누리봄

'사랑 두 배, 행복 두 배 - 두두'

누리봄은 5월 5일 '사랑 두 배, 행복 두 배 - 두두'를 통해 입소자 가족과 실무자 등 총 14명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진심을 담은 편지를 주고받고, 감사의 마음을 카네이션에 담아 전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점심식사로 바비큐 파티에 이어 도림천을 산책하며 여운이 남는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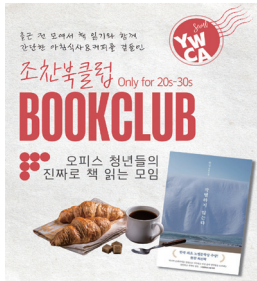
2025 신임이사 교육

서울Y는 5월 13일 2025 신임이사교육을 이사실에서 열었다. 송세실·이은숙·임지은·임혜원 4명의 이사가 참여해 서울Y 조직구조, 비전계획, 비전사업 등을 이해하고 이사의 역할에 대해 배우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신임이사들이 계속해서 서울Y와 함께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며 세상을 살리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조찬북클럽 Only for 20s-30s

서울Y 조찬북클럽은
2030 직장인 청년들이
출근 전 시간을 활용해
함께 책을 읽고
간단한 아침 식사와
커피 타임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 함께 읽을 책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 기간 7월 10일(목)~9월 25일(목)
매주 목요일 7:40~8:40
총 10회 진행 (7/17, 8/7 제외)
- 인원 10명 (선정 시 개별 연락)
책! 필수로! 개별 준비,
간단한 아침 식사와 커피는
서울Y가 준비합니다.
- 문의 02-3705-6009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시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7월 15일(화) 10:00	1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신규 프로그램 안내

영등포	문의 02-858-4514
과정명	교육일정
디지털 e-커머스 마케팅 실무	7월 15일(화)~9월 4일(목) (월-금) 14:00~18: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7월 21일(월)~8월 8일(금) (월-금) 14:00~18:00
보험총무사무원 양성	8월 20일(수)~10월 31일(금) (월-금) 14:00~18:00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양성	8월 25일(월)~10월 22일(수) (월-금) 9:30~13:30
세무실무전문가양성	8월 26일(화)~10월 29일(수) (월-금) 9:30~13:30

노원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한식 디저트 메뉴 실습	7월 4일(금)~9월 12일(금) (금) 19:00~22:00
초등돌봄지도사	7월 4일(금)~9월 12일(금) (금) 9:30~12:30
컴퓨터활용능력2급 (실기)	7월 5일(토)~8월 9일(토) (토) 10:00~17:00
SNS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인스타그램)	7월 12일(토)~8월 23일(토) (토) 10:00~14:00
전산회계 2급 자격증	7월 12일(토)~8월 9일(토) (토) 9:00~18:00
카페 브런치 메뉴 실습	7월 12일(토)~9월 13일(토) (토) 9:30~13:30
커피바리스타 1급 자격증 (이론+실기)	8월 18일(월)~9월 17일(수) (월·수) 9:00~13:00



- 기간 2025년 7월-10월 총 5회
- 대상 매회기 청(소)년 40명 내외
- 장소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 서울
- 신청 회기별 각각 신청 가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혜택
 - ♥ 참가비 무료, 식사제공(점심)
 - ✨ 3회기 이상 참가자 리워드 제공
 - 🌈 봉사활동 시간 등록
(피스액션-기록의 재구성* 참여시)

- 1회 **광복과 여성**
7월 26일(토)
광복의 새벽을 향해
:자유와 평화의 빛을 찾아
- 2회 **일제강점기와 여성**
8월 13일(수)
독립운동, 여성의 이름으로
:저항과 희망의 기록
- 3회 **한국전쟁, 분단과 여성**
8월 30일(토)
전쟁의 폐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주제로
- 4회 **민주화운동과 여성**
9월 13일(토)
함성 속 그녀들과
함께한 민주주의
- 5회 **통일운동과 여성**
10월 11일(토)
분단을 마주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다

문의 | 서울YWCA 평화운동팀
02-3705-6023
sywcayouth@naver.com

CALENDAR					
20257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위원회 재정부 11:00	3 위원회 큰장날준비 14:00 · 차이와 갈등을 다루는 대화 기획을 위한 시민대화 워크숍 (~17일, 매주 목) 19:00	4 위원회 회원증모 11:00 · 로컬푸드직매장 실천사업 킥오프 회의 14:00	5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9일) 10:00 · 씽크머니 정기모임 (19일) 13:00
7	8 이사회 9:00 · 2025 정책워크숍 10:00	9	10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 그린Y · 씽크머니 · 평화아카데미 · 평화/인권 교육 (구로중) 13:20	11	12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9일) 10:00 · 그린Y 정기모임 (26일) 10: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1:00 · 함께하는 우리집 살림 프로젝트 '모두 돌봄ON' 가족 챌린지(1차) 10:00
14 · 역대이사모임 11:00	15 위원회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시설운영사업팀 11:00 청소년팀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 10:00	16 위원회 특별행사준비 11:00 회원활동팀 11:00 누리봄Y 14:00	17 제한절 위원회 영등포Y 11:00 여성능력개발팀 10:30	18 위원회 강남Y 11:00	19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울력 정기모임 11:00
21 위원회 평생체육팀 18:00	22	23 · 그린Y 기후위기대응 교육(~25일, 우리동네커움센터 강동2호점) 15:00	24 · 함께하는 우리집 살림 프로젝트 '모두 돌봄ON' 가족 챌린지(2차) 19:00	25	26 · 청(소)년과 여성, 기억을 잇다! 평화를 함께 걷다! (1차) 10:00 · 소리모아 여름 정기공연 (@서교스퀘어) 17:30
28 위원회 봉천Y 11:00	29	30	31		

CALENDAR					
20258					
월	화	수	목	금	토
				1	2 · 씽크머니 정기모임 (16일) 13:00
4	5	6	7	8	9 · 그린Y 정기모임(23일) 10:0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23일) 10: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1:00 · 함께하는 우리집 살림 프로젝트 '모두 돌봄ON' 가족 챌린지(3차) 14:00
11	12	13 · 청(소)년과 여성, 기억을 잇다! 평화를 함께 걷다! (2차) 10:00	14	15 광복절	16 · 울력 정기모임 11:00
18	19 위원회 홍보출판팀 11:00	20	21	22 · 경기여고 Y-틴 평화아카데미 13:00	23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25	26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7 · 영란여중 Y-틴 OT 14:45	28	29	30 · 청(소)년과 여성, 기억을 잇다! 평화를 함께 걷다! (3차) 10:00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삶, 좋은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삶. 대한민국 청년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밤 10시경, 거리를 걷다 보면 지친 표정으로 학원을 나오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10시에 보이는 아이들은 대부분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다. 학생들은 학원에서 예습하는 많은 공부량과 숙제에 시달려 학교 수업에는 집중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계, 책임감, 비판적 사고력, 사회 규범 등의 중요한 교육 가치들은 점점 멀어지고, 성적만을 바라본다.

외로운 경쟁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높은 성적을 받고, 경쟁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해야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사회적 관계, 화합이나 양보의 가치 등은 배워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함께함으로써 채워지는 삶, 배려와 양보의 가치, 화합의 따뜻함. 경쟁에서 우승한 1등이라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다. 누구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벌어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소리모아 활동은 내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다. 높은 성적, 좋은 스펙이 짝이라고 생각하던 나에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주었다. 소리모아에서는 각자의 학교, 전공 등에 상관없이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른다. 다양한 사람들과 공통의 관심사로 이야기하며 관계를 맺는다. 공연을 준비하면서는 매일 만나 정이 들고, 관계가 깊어진다. 함께 동아리를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한다. 소리모아를 통해 사회의 축소판을 경험할 수 있었고, 각박한 세상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과도한 경쟁으로 잃어버린 배려와 양보, 화합의 가치. 이러한 가치는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아리와 같은 사회적 공동체는 더욱 긍정적으로 기능한다. 젊은 청년에게 동아리는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소리모아에서의 경험은 나에게만은 물론, 다른 부원들에게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지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쉬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

글_오건우 소리모아 기장,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3학년

외로운 경쟁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높은 성적을 받고, 경쟁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해야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젊은 청년에게 동아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2025 서울YWCA 특별행사

함께 걷는 여성, 그 길 위에 희망이 자랍니다

낮설지만 솔직한
사랑 이야기

젤리피쉬

BEN WEATHERILL

2025. 9. 16 화 — 17 수 19:30 명동예술극장

[티켓] 전석 4만원 |문의| 02-3705-6000 02-870-4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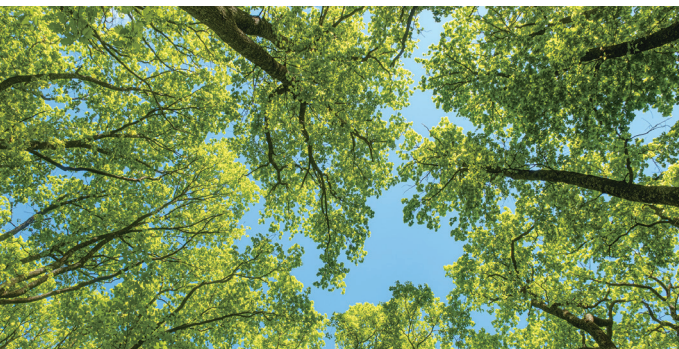


사단법인
서울YWCA

나무의 거리 두기

배려配慮와 예술

글_최문희 홍보출판팀 위원



식물 생태에 관한 글을 읽다가, ‘수관기피현상(樹冠忌避現象)’이라는 낯선 용어를 만났다. ‘나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된다는 덧붙임 말과 함께.

가끔 산책길에 동행하는 초등학생 손녀에게 꽃과 나무를 살뜰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붙여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다행히 나는 어린 시절을 산과 들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보낸 덕분에 풀이름 몇 가지쯤은 익힐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손녀는 나를 마치 식물의 척척박사쯤으로 오해하고, 낯선 풀이 보이면 으레 그 이름을 묻는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려주려고 챙기다 보니, 점점 식물의 세계가 신기하고 좋아진다. 어차피 문외한인지라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수준이지만,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보면, 서슴지 않고 식물 공부를 첫손에 꼽을 것 같다.

이 어려운 용어도 그런 과정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후로는 나무의 윗부분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다. 영어로는 ‘crown shyness’라고 하는 이 현상은, 나무들이 우듬지 부분인 수관(樹冠)에 일정공간을 두어서, 서로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피하면서 자라는 성질을 말한다. 주로 같은 수종(樹種)의 숲에서, 비슷한 나이의 키 큰 나무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 이웃하고 있는 서로 다른 그루의 나무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그루에서 자라는 형제 가지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는데, 특히 소나무나 유칼립투스나무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미 오래전에 보고된 이 현상에 대한 강력한 가설 중 하나는, 나무가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스스로 주변 나무에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능력 덕분에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둬으로써, 바람이 불 때 서로 부딪쳐 가지와 잎이 상하는 일을 막고, 해충의 이동이나 박테리아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도는, 키 큰 나무의 밑동에도 충분히 햇빛이 들게 하려는 배려라고 한다. 결국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방어기제’인 동시에 다른 나무의 생존도 지켜주는 고도의 지혜인 셈이다. 이동하며 능동적으로 먹이를 구하는 동물과 달리, 한 곳에 뿌리내리면 움푹달싹할 수 없는 식물은 햇빛이나 신선한 공기 등을 놓고 서로 경쟁관계에 놓인다. 그러니 이런 현상은 공생(共生)을 위한 엄숙한 생존전략이며, 배려가 바탕이 된 식물 공동체의 놀라운 생태가 아닐 수 없다. 어려운 명칭이지만 인상에 깊이 남은 이유이기도 하다.

배려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어느 공동체든지 따뜻한 공존을 위한 필수 덕목 중 하나다. 아동의 성장단계에서도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면서,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지점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고, 양보나 배려 등 수준 높은 덕목도 익힌다. 이런 미덕은 인류사회에 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하고 수동적인 나무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니 놀랍다.

키 큰 나무숲에 서서 우러러보면, 하늘을 배경으로 크고 작은 나뭇잎과 다양한 가지가 연출해내는 정교한 무늬들을 볼 수 있다. 경외감이 느껴지는 이런 오묘한 조각 작품을 보게 되면서, 나는 숲에 들어가거나, 큰 나무 아래에 서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히고 한참 동안 서 있는 버릇이 생겼다. 신의 경지가 아니면 빛을 수 없는 이 아름다움에도 나무의 일정한 거리 두기가 한몫한다. 여백(餘白)의 예술인 셈이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주인공이 낡은 카메라로 찍는 대상도, 매일 다른 아름다움이면서, 한결같이 위안을 주는 나무의 이런 모습이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무들은 앞서서 실행하고 있었던 셈인데, 기본적인 생리를 뛰어넘어, 배려와 예술성까지 갖춘 식물의 생태가 놀랍다. 나무의 아름다움이 새삼 크게 느껴진다. ♡

IOPE XMD

최초의¹⁾ 피부과 관리²⁾ 비교

**STEM III
CLINICAL RECOVERY
SERUM**

PDRN H.A.™
LIPOSOME

92.3%

IOPE XMD

**XMD STEM III
CLINICAL RECOVERY SERUM**

검증된³⁾ 물광플럼핑

1) 자사 최초 2) 건강한 피부의 피부관리를 의미 3) 보습에 의한 피부 물광 부스팅 효과를 의미함

NEW 아이오페 XMD 스템3 클리니컬 리커버리 세럼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마트 아모레퍼시픽 매장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 5월

특별 후원



- 조연신 장학금 후원
- 인사위원회 실무자연수찬조금
- 최 봄 실무자연수찬조금
- 청소년팀위원회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 후원

재능 기부



- 이유림(직전회장) 2025년 5·6월 회보 'Y 샘터' 칼럼 기고
- 최문희(홍보출판팀 위원) 2025년 5·6월 회보 '환경에세이' 칼럼 기고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2025년 5·6월 회보 '미술로 읽는 성경' 칼럼 기고

복멘토링 후원



구영숙	김민아	김상희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한나	김혜경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송태언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예정원	우영숙	이연배	이윤선	이재림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조민형	조연신	최동수
최 봄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월요까페	창 진

일반 후원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기영숙
김미자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용관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현경	김 형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배정미	서해영	석성옥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애진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이홍자	임중현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수경	정은숙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채재호	최경자	최 봄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월요까페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월 CMS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록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문숙	강민아	강선경	강성길	강수미	강시현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윤정	강일훈	강창석	강하자	강형식
강효미	경규연	계숙화	고경혜	고동연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화	고재옥	고흥애
공명주	공민희	곽동윤	곽민정	곽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수영	구연미	구오영	구지영	권경자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정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지혜	권태진	권현준	권형하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종선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원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관옥	김광희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진	김도근	김동은	김동형	김두례	김라엘
김말녀	김명수	김문자	김문휘	김미경	김미라	김미정
김미현	김미희	김민성	김민숙	김민정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김병호	김보라	김보명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덕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혜	김성희	김세진	김소연	김소희
김수연	김수연	김수현	김순경	김순남	김순임	김순자
김시은	김 신	김애숙	김양선	김예스더	김연경	김연순
김연희	김영숙	김영심	김영옥	김영해	김예은	김예은
김예지	김예지	김옥민	김용숙	김용오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애	김유진	김윤경	김윤나	김윤종	김윤지
김윤지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혜
김익동	김인석	김자희	김재경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운	김준희	김지나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철규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헌
김태경	김태숙	김태식	김태연	김태연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한	김태희	김통범	김하은	김한규	김해정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순	김형원	김형태	김혜규	김혜성	김혜양
김혜진	김화숙	김효숙	김희열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김희진	나미정	남궁정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은희	남형주	남희숙
노남례	노병균	노연순	노인화	노일권	노정자	노현주
노혜환	동지현	류경아	류미현	류종현	류 혁	마신웨
마초희	맹은주	명정신	문경혜	문다영	문미경	문선영
문신환	문응식	문지영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경술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나영	박노영	박덕규	박명윤	박문성
박미소	박미영	박미용	박민선	박병주	박상수	박상영
박상정	박선미	박선주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송아

박순예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외정	박용진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숙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주원	박지선	박지연	박지훈
박 진	박진용	박진화	박찬인	박채원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 현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수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방윤옥
방윤우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광옥
백명숙	백성희	백옥선	백운순	백은선	백은엽	백정금
백지우	백찬현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서경희	서근배	서락원	서명수	서미화	서빛나	서숙경
서옥덕	서원석	서은경	서정연	서지영	서지영	서해원
서현옥	서혜원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진원	손승혜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실	송세은	송옥의	송윤주
송윤화	송은아	송이라	송재임	송종우	송창은	송태언
송혜수	신동선	신민자	신상용	신승우	신연식	신용자
신종인	신지숙	신찬용	신창미	신총섭	신현경	신현미
신현숙	신화옥	심경호	안선희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운	안영호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숙	안정희
안준태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혜리	안희란	양봉규
양세진	양수정	양영화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염수길
엄현진	여명진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오경아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오해동	오혜영	온기석	왕정환	용현중	우수경
우승현	우재하	우호희	원경록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위정선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애나	유예목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현숙	육순연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광미	윤문노
윤방현	윤상은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순민	윤장범	윤재숙	윤재양	윤재혁	윤정향
윤정희	윤지영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경희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금재	이금희	이기쁨
이기화	이남연	이남진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자	이명혜	이민석	이민정	이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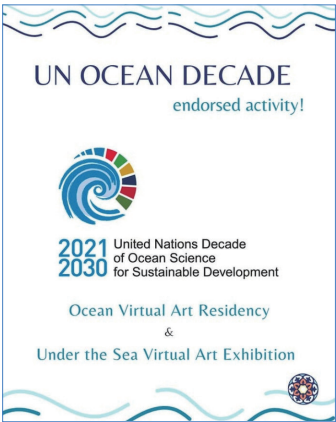
이병희	이보라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봉희	이상명	정윤희	정은주	정이현	정재훈	정정애	정종화	정종화
이상욱	이상원	이상윤	이상지	이상해	이선미	이선아	정준선	정지영	정지영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징자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이수범	정해윤	정현아	정현주	정혜경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윤	이수진	이숙용	정희경	정희주	제오복	조계연	조규성	조규영	조규원
이순영	이순옥	이순우	이순천	이슬기	이승국	이승연	조길수	조남임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민형	조성미
이승진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연수	이영대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환	조세환	조애자	조연신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숙	이영자	조오영	조용선	조원식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이영희	이예은	이옥경	이용호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조정현	조정훈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한솔	조한준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조형윤	조혜성	조혜전	조홍신	조희수	주다엘	주동일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주라엘	주명애	주영민	주하진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진가인	진부향	진영선	진재승	차경희	차미연	차하나
이은희	이의곤	이임수	이재건	이재경	이재옥	이재욱	채송화	채재호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혜	최명희
이재정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최문정	최문희	최민영	최 봄	최봉수	최새롬	최서래
이정석	이정수	이정숙	이정숙	이정은	이정인	이정한	최성현	최순자	최순태	최승민	최승아	최승환	최영실
이정현	이정훈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최영주	최운영	최유나	최유정	최운서	최운주	최윤희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범	이지선	최윤희	최은성	최은주	최정호	최종대	최지영	최지영
이지숙	이지아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진규	이진선	최지은	최지희	최진숙	최현경	최현주	최혜영	최혜원
이창희	이채진	이태림	이푸른하	이한기	이항재	이 행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이행남	이행자	이현국	이현순	이현미	이현아	이현옥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명희	한미미	한민희	한성우
이혜미	이혜주	이혜준	이혜진	이화정	이효정	이희진	한승연	한승우	한승희	한예성	한옥연	한완영	한윤경
이희찬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임성준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임양수	임온유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연	임정현	한진숙	한찬호	한혜정	허미란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임정화	임정훈	임준호	임중현	임지연	임지은	임지현	허혜정	현은순	홍경화	홍선미	홍성옥	홍수연	홍승연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현희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현표	홍호성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명자	장민조	장석귀	장수용	황명숙	황보영	황선미	황어진	황왕연	황용하	황윤희
장순복	장양순	장영옥	장영은	장예선	장용익	장주연	황주혜	황지희	황현순				
장지현	장철승	장현주	장 훈	전경희	전덕기	전민구	(주)건축사사무소빅 (주)미래공간인디맨 (주)지인에프엔씨						
전병규	전병우	전부일	전상숙	전선희	전소영	전순덕	그린에이전시 김진경디자인스튜디오 노무법인 한승						
전영삼	전영지	전오연	전윤숙	전인옥	전재수	전하라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솔샘건축 스튜디오GAGA 씨에라여성의원						
전행욱	전현숙	정경문	정경미	정경원	정동신	정미선	아뜰리에 더 라엘 에스와이에이건축사사무소 조명팩토리						
정미성	정상미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희	정세호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주식회사콤마코리아 진한의원						
정소희	정수경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여백	파티인테리어 향기나무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윤희							

아트팜엘케이
유엔해양 10년계획 ‘Ocean: International Virtual
Residency and Exhibition Program’ 선정

따뜻한나무장학회*의 멤버인 김재청님(연출가), 박승일님(프로듀서, ㈜엘스텍바이런먼트 책임대표사원)이 속한 아트팜엘케이(Art Farm LK)가 유엔해양10년계획(UN OCEAN DECADE)의 유일한 공식 예술 프로그램인 ‘Ocean: International Virtual Residency and Exhibition Program’에 전 세계 6개 선정팀 중 한국 최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트팜엘케이는 10여 년 넘게 인간의 삶과 생태, 기후위기, 해양 문제를 스토리와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는 단체로, 해수면 상승이라는 기후 위기 속 미래 인류를 그린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를 얼마 전 공연 올리기도 했습니다.

* 따뜻한나무장학회는 서울Y 청년해외봉사단을 통해 만난 청년들이 사회원활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입니다. 따뜻한나무장학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Y 청소년, 청년, 동아리에 장학 후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해 Y-틴, 대학·청년YWCA 인준식에 참여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트팜엘케이의 해양 주제 음악을 소개하는
특별 공연 오픈 스튜디오는
2025년 8월 5일 오전 2시(한국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QR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서울YWCA회관
대관 안내

대강당

- 좌석** 의자 200석, 의자·테이블 100석(다양한 규모의 행사 가능)
* 원형테이블은 개별 렌탈
- 기자재** 인터넷선, 마이크(유선·무선), 스크린(고정·이동형),
피아노, 현수막설치봉
- 사용료** 2시간(기본) 40만원(VAT별도)부터
- 문의** 02-3705-6093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08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소식

최유정 강남청소년센터 간사
6월 21일(토) 웨딩 시그니처(서울 합정)
2층 트리니티홀에서 결혼

홍근표 명예이사
6월 23일(월) 소천

박미용 재무회계팀 총괄부장
6월 25일(수) 시부상

황성연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
6월 29일(일) 시부상

‘카카오 같이가치’ 후원
미안마에 학교를 지어주세요!

미안마 아이들에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가 무너진 미안마, 절망의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다시 배우고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의 학교’를 세워 주세요!



서울YWCA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분쟁으로 여러 어려움에 있는 미안마와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기반으로 미안마 청소년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짓는 데 함께하고자 ‘카카오 같이가치’ 플랫폼을 통해 기금 마련에 함께합니다.



QR코드 링크를 통해
① 하트를 누르거나 ② 댓글을 남기거나
③ SNS를 통해 공유하면
카카오가 각각 100원씩 기부합니다!

이번 모금은, 버마플랫폼 연대단체 중 하나인 아시아태평양 YMCA의 이름으로 모금함이 개설됐습니다. 서울YWCA를 비롯한 버마플랫폼 연대체가 마음을 모아 모금을 위한 홍보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서울YWCA 시민걷기축제 후원

강민아	김수련	김 형	나순복
배은경	백향덕	신현미	이경연
이복희	이숙현	이연배	이유림
임혜원	전영지	전현숙	정선덕
조연신	차미연	최 봄	최한나
최혜란	한혜영	황성연	

강남청소년센터위원회	매일유업
국제협력위원회	빙그레
명예위원모임	삼성전자
봉천종합사회복지관위원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소비자·환경위원회	스타벅스코리아
여성참여위원회	오뚜기
청소년위원회	일동후디스
평생체육위원회	(주)LG생활건강
	(주)농심
CJ제일제당	(주)산티아고앤
LG전자	(주)여성신문사
동서식품	(주)주영이앤씨
롯데웰푸드(주)	주식회사 하나은행

바로잡습니다

회보 서울YWCA 2025년 5+6월호
미술로 읽는 성경(18-19페이지) 칼럼에서
윌리엄 블레이크 「아담과 하와에 의해 발견된 아벨의 시신」
작품 제작연도를 1926년 경이 아닌
‘1826년 경’으로 바로잡습니다.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 피부 탄력 피로도 12시간 후에도 3.5% 개선 상태 유지, 시험기간 : 2019.10.17~2019.10.18 / 시험대상 : 만 20~59세 여성 20명 / 시험기관 : 글로벌의학연구소



양한나

부산Y 창설자
독립운동가·사회사업가
1893-1976

양한나 선생의 본명은 양귀념.

‘한나’라는 이름은 망명지에서 독립군 뒷바라지에 억척같은 추진력을 보이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라산 같은 굳은 의지의 사람이 되라고 지어준 것이라 한다.

- 『부산YWCA 50년사』 36쪽

양한나 선생은 부산의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 상경하여
진명학교에 입학했으나 학비조달의 어려움으로 부산으로 돌아가
1911년 일신여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이후 마산 의신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항일 동맹휴학을 주도하고
일본에 건너가 요코하마여자신학교에서 수학했다.

그 뒤 중국으로 망명해 쑤저우여자사범대학에 학적을 두고
상해임시정부 경상도대의원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귀국하게 된 선생은

1925년 이화학당 보육과를 졸업하고

1926년까지 조선YWCA연합회 총무·연합위원으로 일했다.

1946년에는 부산 최초의 여성단체, 부산YWCA를 창설하고
초대회장을 맡아 부산지역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광복 이후 1946년 5월 독립운동가 출신인

안맥결, 전창신 등과 함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었으며,

1947년 초대 수도여자경찰서장에 취임해 사회질서 유지에 공헌했다.

고아원 부산 자매여숙과 부설기관으로 정신불구원을 설립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도 했다.

장한어머니상(1964), 용신봉사상(1967)을 수상했다.